

##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김 명소 · 성 은현 · 김 혜원

호서대학교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들이 성격의 5요인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들의 연령에 따라(20, 30대와 40, 50대) 성격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동시에 여성 스스로가 보고하는 성격특성과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성격특성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성격적 요인을 밝히고 어떠한 성격특성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인의 성격과 삶의 질에 대해 응답한 370명의 기혼여성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응답한 일반인 36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들은 지적개방성과 호의성, 성실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주관적 삶의 질 요인들에서는 긍정적 정서에서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 자신이 보는 성격과 타인들이 보는 바는 성격은 5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성격요인과 주관적 삶의 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지적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주관적 삶의 질의 세 가지 요인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성격요인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논의되었다.

이제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그룹의 연구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비교연구로 이들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과의 비교에서 갖는 심리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왔다. 또 다른 그룹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심리적 위치에 있는가, 또는 어떠한 사회적 변인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심리적 지위에서 열등한 위치를 갖도록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성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구조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혹은 여성심리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따라올 법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자만이 관심을 기울여왔다. 즉, 여성,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의 독특한 성격특성은 무엇인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여

성만의 독특한 성격특성은 존재하는가이다. 많은 성격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거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의 성격특성을 연구주제로 삼아온 반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특성을 밝힌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성격적 특성을 다루면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은 여성들의 성격특성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외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이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성격을 강조하는데 반해,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성격특성은 학자들마다 제시하고 있는 바와 분류기준이 다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격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5요인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I. 성격의 5요인

성격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특성(trait)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수많은 특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성격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특성(trait)이란 한 개인을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고 지속적으로 차이 나는 행동방식이다. 대표적인 특성이론가인 Allport(1961, Ryff & Keyes, 1995 재인용)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기본 특성'과 '중심 특성', 그리고 '이차적 특성'으로 나누었다. 한편, Cattell(1946, 1965, Ryff & Keyes, 1995 재인용)은 직접 관찰되는 일련의 행동들로부터 알 수 있는 '표면 특성'과 표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변의 구조'이며 인간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는 '근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근원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내향적-외향적, 복종적-지배적, 보수적-개혁적 등 16개의 근원 특성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16PF라는 성격요인검사를 제작하였다. Fiske(1949, Ryff & Keyes, 1995 재인용)는 Cattell의 16개 요인을 이루는 특성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Fiske의 5개 요인은 '사회적 적응성', '동조성', '성취 의지', '정서적 지적 추구'였는데 이것은 후에 5요인 모델의 근간이 되었다.

그 후 Norman(1963, Ryff & Keyes, 1995 재인용)이 공식적으로 5요인 모델을 학계에 제안함으로써 5요인 모델은 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제안한 5개 요인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이었다. McCrae와 Costa(1991)도 자기 보고 형태의 검사지, 관찰자의 보고에 의한 평가, 동료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요인이 성격 구조를 잘 설명함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Norman(1963, McCrae & Costa, 1991 재인용)이 '교양'이라고 말한 요인이 창의적이고 독자적이고 도전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 요인을 '개방성'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5요인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이후, 성격의 5요인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격연구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5요인 검사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검사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조명한, 차경호, 1998).

위에서 제시된 성격의 5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인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 요인과 관련된 특성들은 적극성,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주도성, 집단 성향성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서적 안정성'으로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반대되는 특성은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번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내는 것 등으로 McCrae와 Costa(1985, McCrae & Costa, 1991 재인용)는 이 요인을 '신경질적 성향'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요인은 '호감성'요인으로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관대하고 양보심이 많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요인을 Fiske(1949, McCrae & Costa, 1991 재인용)는 '사회적 동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성실성'으로 사회적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고, 신뢰감을 준다. Fiske(1949, McCrae & Costa, 1991 재인용)는 이 요인을 '성취의지'라고 명명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이지성'으로써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지적인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교양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가정 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man은 이 요인을 '교양'이라고 하였고 Costa와 McCrae(1985, McCrae & Costa, 1991 재인용)는 '개방성'이라고 불렀다.

## II. 우리나라 여성의 성격특성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이혜성(1998)은 예비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들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와 이를 통해 제작된 검사지를 통하여 20대, 40대, 60대 한국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대의 한국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적극적 특성, 충동적 특성, 감각적 특성, 이기적 특성, 희망적 특성인 5가지

로 나타났다. 40대 한국 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무기력한 특성, 자상한 특성, 가족중심적 특성, 뻘뻘한 특성, 과시적 특성의 5가지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60대 한국 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은 세 가지로 위축적 특성, 권위주의적 특성, 자애로운 특성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인(남녀를 모두 포함한)의 심리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본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해성(1998)이 밝히고 있듯이 이 연구에서 나타난 60대의 위축적이고 권위주의적 특성, 40대의 무기력하고 과시적이고 가족주의적 특성, 20대의 적극적,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특성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국인들이 체면을 중시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재은, 1987)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40대에서 뻘뻘한 특성이 대표적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20대의 감각적 특성과 40대의 뻘뻘하고 현신적이고 희생적인 특성은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요인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자들에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데는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예: 최상진, 1999a, 1999b) 기혼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은 '미시족'으로 평가받는 반면 한 집단은 '아줌마'로 대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 Ⅲ.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입장에서 정의내려져 왔다(Diener, 1984; 조명한, 차경호, 1998). 첫째의 유형은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복은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속성이나 환경적 조건(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신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두 번째 입장에선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를 중시한다. 여기에서 행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마지막 정의는 한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 개인이 내리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주로 감정에 근거한 평가(감정적 요소)와 인지에 근거한 평가(인지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번째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 삶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서 감정적 요소에 근거한 평가들은 다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은 상반되는 것이기보다는 서로 독립된 차원이다(Diener & Emmons, 1984).

한편, Szalai(1980)는 삶의 질을 건강상태, 직업에서의 만족, 불만족, 경제상의 문제, 결혼 생활의 성공과 실패, 자녀 및 친척과의 화합 문제, 이웃간의 관계, 사업문제, 일반적, 정치적 상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제까지 가져온 삶의 질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 지표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조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새로운 사회지표는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지각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삶의 질이란 개인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이며 경제적, 정치적인 사회지표 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rickman, Coates, 와 Janoff-Bulman(1978)은 건강, 나이, 결혼 상태, 사회 문화적 지위와 같은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는 인간이 자신의 생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이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5). 하나는 소득, 교육, 보건, 문화와 여가와 같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행복이나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우는 주관적인 측면이다. 이중, 초기의 학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현적, 상황적, 혹은 상향적(bottom-up)인 요인들(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최근의 연구

들은 개인내의 내면적이고 하향적(top-down)인 요인들(예를 들어, 성격, 자아존중감, 적응능력 등)을 밝히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아가 이 둘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행복감을 높이는 선행요인들을 밝히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인가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30여 년 전 개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Wilson(1967,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재인용)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행복한 사람은 "성별이나 지능과는 상관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고, 종교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며, 자아존중감과 직업의욕이 높고, 적당한 정도의 포부를 가진 사람"이다. 한편,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는 Wilson 이후 삶의 질에 관한 30여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상향적 요인과 하향적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현적, 상향적(bottom-up) 요인들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의 종합적 고찰에 따르면 먼저, 몇몇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해볼 때 삶의 질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소득수준과 행복과의 관계에서는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간의 비교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민은 그렇지 않은 국민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보이지만, 한 국가 내에서 행복감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여부나 상태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Wilson(1967)이 앞서 제시했듯이 남녀 모두 기혼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더 행복해하고 있었으나, 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는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동거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령에 따른 영향력도 Wilson이 제시한 바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

타나고 있다. 비록 연령이 증가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과 같은 변인을 통제된 후에는 사라졌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연령과 행복감간의 부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바는 삶의 질의 구성개념 중 긍정적인 정서만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교육수준과 행복감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소에 따른 영향력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향적인 요인들이 여성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극히 소수에 한한다.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심리학적 삶의 질(psychological well-being)을 살펴본 김혜원(1996)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 직업의 종류만이 이들의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서비스직의 여성들이 다른 직업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정도의 삶의 질을 보였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자녀의 성별만이 이들의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딸만 둔 주부는 아들과 딸을 함께 두거나 아들만을 둔 주부에 비해 낮은 정도의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남녀의 삶의 질을 비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조명한과 차경호(199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약간 있지만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전반적 수준은 남녀 대학생이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반면,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지표에 있어 일관성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 하향적(top-down) 요인들

과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적 요인들을 강조하던 바와 대조를 보이면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하향적모델(top-down model)에서는 생활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전반적인 경향성(global tendency)이 개인에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Diener, 1984). 이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적 경향성은 일시적 사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동태적 균형 모델(dynamic equilibrium model)은 개인마다 주관적 삶의 질의 균형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일관성있는 보고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Headey & Wearing, 1989). 이러한 균형 수준은 성격, 특히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의해 예언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이 균형 수준과 차이가 생기더라도 종국적으로 개인은 그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Diener와 그의 동료들(Diener, et. al., 1999)은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 연구들에서는 하향적 요인 중 몇 가지 색다른 요인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젊음과 적당한 야망(aspiration)등은 더 이상 주관적 삶의 질의 선행변인이 아닌 반면, 개인의 성격적 변인을 포함한 심리적 요인이 중요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하향적 요인이며 본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인인 성격과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기질(temperament)은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상황에 처하도록 인생의 방향을 잡는 키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한편, McCrae와 Costa(1991)는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제까지 삶의 질은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의 관계속에서만 이해되었다고 보고, 이와 함께 개방성, 성실성과 호의성을 삶의 질과 연관시켜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인으로 주목하였다. 이들은 Freud의 '인간은 일과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부각시켜 성실성과 호의성이 이러한 일과 사랑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도구적(instrumental)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성격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행복 및 이를 결정하는 감정적 반응은 지속적인 성향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은 긍정적 감정을, 정서적 안정성은 부정적 감정을 낮게

되고 양자는 전반적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외향성이 높고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개인은 행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개방성은 외향성이나 정서적 안정성과는 달리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일방적인 방향으로 연결을 갖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 영향력은 그 감정을 느끼는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일의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호의성은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도구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녀의 응답자를 8세부터 27세까지 종단연구한 Pulkkinen(1996)의 연구에서는 현재 적응적 상태를 보이는 응답자와 갈등상태를 보이는 응답자들의 성격특징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다른 성격검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성격의 5요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상태를 보이는 여성응답자와 갈등상태를 보이는 여성응답자간에 차이를 보이는 성격변인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적 호기심, 외향성, 신경증, 호의성이 포함되어 있어 성격의 5요인 중 4가지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self-esteem)도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의적 문화권(예: 미국)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이던 바와 달리 집단주의적 문화권(예: 홍콩)에서는 자아존중감보다는 타인과의 조화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wan, Bond, & Singelis, 1997).

이와 유사하게 전영자(1991)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일부의 성격적 요인은 응답자들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안 중 "맞벌이 부부로 살아나가는 우리 가족의 생활방식에 대해 나쁜 점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생각한다"와 같은 인지재구조화(성격요인 중 긍정성과 유사)는 응답자들의 우울이나 불안경향과 부적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목적들을 갖고 설계되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어떠한 성격특성을 주로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기혼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의 분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 스스로가 보고하는 성격특성과 일반인들(남성과 여성이 합해진)이 평가하는 성격특성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성격적 요인을 밝히는 작업으로써 어떠한 성격특성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자

설문지를 통하여 여성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보고하게 하였다. 이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인 기혼여성으로 이들이 보고한 총 370명의 응답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중기와 성인후기를 40대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Bromley, 1966; Buhler & Massarik, 1968, 김태련, 장휘숙, 1997 재인용) 기혼여성 중 20-30대와 40-50대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일반인 혹은 타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성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대에서 70대까지의 남녀 367명에게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어떠한 성격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 20-30대 기혼여성들이 어떤 성격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40-50대 기혼여성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각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기평가 집단(내집단)

전체 대상자 중 20-30대 기혼여성이 전체의 40.9%, 40-50대가 59.1%의 비율을 보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었으며(91.8%) 이혼·별거 혹은 사별상태인 대상자는 5.3%에 해당하였다. 교육 정도에 따른 응답자수를 보면 고졸(38.5%)과 대졸(3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및 초등학교 졸업자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35.6%), 경기도(35.3%), 충청도(27.6%),

기타(1.5%)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월평균 가구수입은 '100-199만원'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많았고(39.4%), 그 외의 층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과 관련되어서는 전업주부가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을 가진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거의 반반을 이루고 있다.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 중에서는 서비스직(12.1%), 판매직(11.2%), 전문관리직(8.5%)의 순서로 비율이 나타났다.

#### 2) 일반인 집단(외집단)

전체 대상자중 남자는 43.1%, 여자는 52.9%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9.7%, 30대가 19.2%, 40대가 18.4%, 50대가 10.7%, 60대 이상이 2.0%의 비율을 보였다. 결혼상태에 대한 응답자수를 보면 기혼·미혼의 비율이 58.2%와 41.8%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재(42.2%), 대졸(23.2%), 고졸(29.5%), 중졸(3.2%), 초등졸(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별로는 경기도(41.5%), 서울(29.1%)의 비율을 보였으며 월평균 가구수입 면에서는 월평균 100-199만원(35.2%), 200-299만원(29.1%), 100만원 미만(11.2%), 300-399만원(10.4%), 400만원 이상(10.1%)의 비교적 고른 응답자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직업별로는 대학생, 주부, 판매직, 사무직, 서비스직, 기술직, 전문관리직,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성격 5요인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orman(1963)의 제작도구를 최근 한국판으로 수정한(PSI 컨설팅, 1998)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에는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N), 외향성(Extraversion: E), 지적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호의성(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안정성 요인은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 심약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향성에는 온정, 사교, 주장, 활력, 자극추구, 긍정적 정서와 같은 하위요인들이 포함된다. 또 지적개방성은 상상, 심미, 감정, 행동, 독창, 가치 요인으로, 호의성 요인은 신뢰, 솔직, 이타, 순용, 겸손, 동정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에는 유능감, 정연성, 충실성, 성취갈망, 자기규제, 신중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5요인에 포함된 성격문항 90개(각 요인은 16문항씩)와 응답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95개의 문항이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정서적 안정성에서  $\alpha=.795$ , 외향성에서  $\alpha=.687$ , 지적 개방성에서  $\alpha=.805$ , 호의성에서  $\alpha=.788$ , 성실성에서  $\alpha=.793$ 였다.

## 2)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는 내집단에 대해서는 성격의 5요인과 함께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도 응답하게 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은 Diener(1984)가 개발한 것을 차경호와 조명환(1996)이 한국판으로 수정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은 일반적인 부분과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ion),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on)의 3요인을 측정하는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영역의 신뢰도는 삶의 만족도에서  $\alpha=.798$ , 긍정적 정서에서  $\alpha=.682$ , 부정적 정서에서  $\alpha=.803$ 이었다.

# V. 결 과

## 1. 성격의 5요인

### 1) 자기(내집단) 평가

연령에 따른 기혼여성들의 5요인 성격특성 차이는 성실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지적개방성과 호의성에서도 드러났으나,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1).

표 1. 자기평가에서 기혼여성들이 보고한 5요인 성격특성에 관한 연령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분석결과

요 인	평 균(표준편차)		t값	p
	20-30대	40-50대		
정서적 안정성(N)	2.953(.416)	2.901(.418)	1.099	.273
외향성(E)	3.317(.473)	3.243(.471)	1.389	.166
지적개방성 (O)	3.047(.350)	2.961(.347)	2.167	.031
호의성(A)	3.431(.360)	3.527(.355)	-2.976	.018
성실성(C)	3.327(.422)	3.452(.351)	-2.798	.003

즉, 지적개방성은 20-30대의 젊은 기혼여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의성과 성실성은 40-50대의 중년 여성들이 더 높았다.

또한, 각 성격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 요인은 전체적으로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적 안정성의 하위요인들(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 심약) 중 '심약'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20-30대 기혼여성들이 40-50대 보다 위기상황에서 불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상충받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에서는 20-30대가 40-50대보다 삶에서 기쁨, 행복,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개방성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 중에서 '상상'과 '행동'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30대가 40-50대 보다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고 행동변화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호의성의 6개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동정'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나, 40-50대가 타인에 대해 동정심, 관심, 공감성이 높은 반면에 20-30대는 좀 더 합리적이고 냉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 요인에서는 '충실성', '성취갈망', '자기규제' 하위요인에서 40-50대가 20-30대 보다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40-50대 기혼여성들은 20-30대 보다 더 책임감·의무감을 느끼고, 생각보다 행동이 많으며 목적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뿐만아니라 40-50대는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나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끝까지 마치려는 노력을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20-30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갈망 하위요인은 두 집단 모두에서 직업을 가진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30대의 직업을 가진 젊은 기혼여성들은, 예상한 대로, 40-50대 전업주부들보다는 성취욕구나 목적의식이 높았다.

한편 연령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 중에서는 교육정도와 직업에 따라 각각 지적개방성( $F=4.842^{***}$ )과 외향성( $F=3.35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여성들은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개방성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전업주부들 보다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좀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관리직과 경영관리직 여성들이 외향적인 특성이 더 강한 경향이 있었다.

2) 일반인(외집단) 평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외집단이 20-30대와 40-50대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을 각각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2).

표 2. 일반인이 지각한 20-30대와 40-50대 아줌마의 5요인 성격특성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차이분석 결과

요 인	평 균(표준편차)		t값	p
	20-30대	40-50대		
정서적 안정성(N)	3.133(.326)	3.374(.342)	-1.197	.844
외향성(E)	3.531(.319)	3.205(.400)	11.628	.000
지적 개방성(O)	3.152(.281)	2.716(.317)	20.576	.000
호의성(A)	2.786(.379)	3.339(.424)	-17.653	.000
성실성(C)	3.150(.332)	3.247(.335)	-4.052	.000

표 2에서 보듯이 그 방향성은 기혼여성 자신의 평가와 거의 같았다. 즉, 일반인들은 20-30대 기혼여성들이 40-50대 보다 더 외향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0-50대 기혼여성들이 더 성실하고 호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그 차이의 정도이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t값의 크기나 유의도 수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혼여성 본인들이 지각한 연령별 차이 보다 일반인들은 훨씬 더 큰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3) 기혼여성 자신의 평가와 일반인평가 사의 차이

그 다음으로 자신집단과 외집단의 지각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20-30대 기혼여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자신과 일반인의 평가가 5요인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3). 20-30대 기혼여성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자신을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호의적이며 성실하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외향성과 지적개방성은 좀 더 낮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 중 기혼자들보다 미혼의 경우가 20-30대 기혼여성들을 좀 더 성실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층이 같은 연령대 기혼여성들을 좀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지각하였다.

표 3. 20-30대 아줌마에 대한 자신과 일반인의 5요인 성격특성 지각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평 균(표준편차)		t값	p
	자 신	일반인 (타인)		
정서적 안정성(N)	2.953(.416)	3.130(.324)	-4.431	.000
외향성(E)	3.318(.473)	3.528(.318)	-4.711	.000
지적 개방성(O)	3.048(.350)	3.153(.283)	-3.052	.003
호의성(A)	3.432(.360)	2.787(.378)	17.235	.000
성실성(C)	3.328(.422)	3.148(.330)	4.419	.000

40-50대 기혼여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5요인 중 외향성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40-50대 기혼여성자신들은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에 상관없이 기혼여성들은 스스로를 일반인들이 보는 것 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40-50대 아줌마에 대한 자신과 일반인의 5요인 성격특성 지각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차이 분석 결과

요 인	평 균(표준편차)		t값	p
	자 신	일반인 (타인)		
정서적 안정성(N)	2.901(.416)	3.140(.342)	-6.751	.000
외향성(E)	3.242(.471)	3.205(.400)	.912	.362
지적 개방성(O)	2.960(.347)	2.722(.323)	7.803	.000
호의성(A)	3.530(.356)	3.336(.423)	5.618	.000
성실성(C)	3.451(.351)	3.250(.335)	6.509	.000

또한, 일반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간의 평가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혼인 경우 미혼자들 보다 40-50대 기혼여성들이 좀 더 지적개방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F=9.949\*\*\*), 특히 동일한 연령대(40-50대)의 일반



인들이 자기 연령대의 기혼여성들을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라고 평가한 점이 흥미롭다(F=3.834\*\*). 이러한 결과는 미혼의 경우 중년의 기혼여성 혹은 아줌마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40-50대 기혼여성들을 좀 더 외향적이며(F=4.219\*), 호의적(F=7.091\*\*)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 2. 주관적 삶의 질의 3요인

### 1)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변인들의 요인구조

먼저, 주관적 삶의 질의 일반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 5문항, 긍정적 정서 4문항, 부정적 정서 4문항의 총 13문항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 방식은 varimax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는데, 이들 요인이 전체분산의 약 60%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5).

표 5. 주관적 삶의 질 변인들의 요인구조

변인	요인		
	1	2	3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좋다.	.789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왔다	.770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724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	.67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616		
만족감		.822	
기쁨		.808	
자부심		.763	
애경		.699	
슬픔			.781
공포			.717
죄의식			.713
화남			.579

위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주관적 삶의 질이 3개의 독립적인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제 1요인은 삶의 만족도, 제 2요인은 긍정적 정서, 제 3요인은 부정적 정서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 요인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간에는 .461,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간에는 -.277,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관계는 -.092로 나타나, 특히 두 정서가 서로 독립적 구성개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

주관적 삶의 질의 3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기혼여성들의 자기평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된 변인들을 표 6에 정리하였다.

먼저, 삶의 질의 3요인에 대해 기혼여성 스스로가 평가한 바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3요인중 긍정적 정서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 20-30대 기혼여성들이 40-50대보다 애경, 만족감, 기쁨, 자부심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정서 역시 20-30대의 젊은 층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의 세부 요인들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할 때 20-30대의 젊은 기혼여성들이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의 3요인의 평균(표준편차)

인구통계적 변인	삶의 만족도	요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연령			
20-30대	4.086(.980)	4.277(1.152)	2.923(.792)
40-50대	3.992(.981)	3.954(1.047)	2.800(.882)
F	.570	4.636**	1.260
결혼 상태			
기혼	4.033(.982)	4.091(1.096)	2.796(.866)
이혼·별거·사별	4.040(.997)	3.875(.997)	3.305(.808)
F	.015	.620	8.299***
교육 정도			
초등졸	3.563(.792)	3.738(1.249)	3.167(.996)
중졸	3.752(.964)	3.665(1.030)	2.767(.9253)
고졸	4.010(1.008)	3.896(.968)	2.845(.837)
대졸	3.681(1.125)	3.885(1.133)	3.134(.863)
대졸이상	4.304(.902)	4.520(1.104)	2.811(.801)
F	5.701***	8.348***	1.278

\*p<.05, \*\*p<.01 \*\*\* p<.001

다음으로, 삶의 질의 3요인에 대해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기혼여성들이 이혼이나 별거, 사별의 경우보다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도에 의한 삶의 질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직업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응답자수의 심한 불균형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나 전문직 혹은 사무직의 직업을 가진 여성일수록 전업주부나 생산노동직 혹은 서비스직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혜원(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외의 인구통계적 변인들, 즉 거주지역이나 가구 총수입에 따라서는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변인들중 결혼상태, 교육정도,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된 위와 같은 결과들은 bottom-up 접근에 대한 기존의 외국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 3) 인구통계적 변인과 주관적 삶의 질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인구통계적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그들의 삶의 질 요인들의 중요한 예측 변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각각  $p < .001$ ) 부정적 정서 요인에는 아무런 인구통계적 변인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의 중요성이 어떤 문화권에서 보다 큰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질 요인들과 인구통계적 변인들과의 관계성이 기혼여성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보기 위해 20-30대와 40-50대로 나누어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다(표 7).

표 7. 연령별 삶의 질 요인들에 대한 중요 인구통계적 예측변인들 차이

	전체	20-30대	40-50대
삶의 만족도	교육정도***	교육정도**	가구총수입*
긍정적 정서	교육정도***	교육정도***	교육정도**
부정적 정서		직업유무**	결혼상태*

\* $p < .05$ , \*\* $p < .01$  \*\*\*  $p < .001$

20-30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요인에는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정도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드러난 반면, 직업의 유무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서 20-30대의 경우 여성 취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삶의 질 중에서 부정적 정서경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40-50대의 기혼여성들에서는 가구 총수입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교육정도가 긍정적 정서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결혼상태가 부정적 정서와 의미있게 관련이 있었다. 즉, 40-50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상태인지 아니면 이혼·사별 혹은 별거상태인지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경험의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40-50대 여성들에게는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격의 5요인과 주관적 삶의 질

성격의 5요인중 어느 것(들)이 각각의 삶의 질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즉 어떤 성격특성이 삶의 질 요인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op-down 접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표 8.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각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R <sup>2</sup>	b	$\beta$	t값
정서적 안정성(N)	.123	-.660	-.279	-4.373***
삶의 만족도				
지적 개방성(O)	.163	.532	.181	3.160**
성실성(C)	.192	.501	.192	3.022**
외향성(E)	.205	.277	.126	2.170*
긍정적 정서				
지적 개방성(O)	.074	.678	.213	3.683***
외향성(E)	.111	.400	.173	2.931**
성실성(C)	.136	.469	.163	2.845**
부정적 정서				
정서적 안정성(N)	.205	.915	.447	8.368***

\* $p < .05$ , \*\* $p < .01$  \*\*\*  $p < .001$

그 결과 5요인들중 호의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관련정도는 정서적 안정성, 지적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일수록, 또 성실하고 외향적 성향이 강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정서와 는 지적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순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성격의 5요인 중 정서적 안정 성이 부정적 정서의 유일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정 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 많 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의 5요인과 삶의 질간의 관련 성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 적 회귀분석을 각 집단에 실시하였다(표 9).

표 9.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령별(20-30대와 40-50대)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연령	변인	R <sup>2</sup>	b	β	t 값	
삶의 만족도	20-30대	성실성(C)	.120	.469	.190	1.870	
		외향성(E)	.159	.453	.217	2.414*	
		정서적 안정성(N)	.198	-.527	-.224	-2.259*	
	40-50대	정서적 안정성(N)	.143	-.722	-.304	-3.702***	
		성실성(C)	.181	.573	.208	2.537*	
		지적 개방성(O)	.208	.486	.165	2.210*	
긍정적 정서	20-30대	성실성(C)	.152	.973	.349	4.022***	
		외향성(E)	.190	.475	.199	2.289*	
		지적 개방성(O)	.078	.785	.257	3.480**	
	40-50대	외향성(E)	.122	.475	.212	2.861**	
		20-30대	정서적 안정성(N)	.189	.791	.435	5.133***
			40-50대	정서적 안정성(N)	.216	1.029	.465

\* p<.05, \*\* p<.01, \*\*\* p<.001

위 표에 제시되었듯이 20-30대의 경우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40-50대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성 실성, 지적 개방성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를 준거로 했을 때는 성실성, 외향성이 20-30대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40-50대에서는 지적개방성, 외향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정적 정서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 안정성만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 VI.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성격요인과 삶의 질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떠한 성격특성을 주로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구체적으 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의 분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 스스로가 보고하는 성격특성과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성격특성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었다. 두 번째는 기 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성격특성과 어떠한 관 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기혼여성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일반인들의 평가

먼저 기혼여성이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해 보고한 바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30대 기혼여성은 40-50대 기혼여성에 비해 더욱 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50대 기혼여성들은 20-30대 기혼여성에 비해 호의성과 성실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 고 도전적인 젊은층의 특성과, 비교적 관대하고 사회 적 규범이나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중년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자신이 평가한 성격과 일반인들이 평가한 성격특성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20-30대와 40-50대의 평가에서 모두 나타난 바 로, 기혼여성 스스로에 비해 일반인들은 이들의 성격 특성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 일반인들은 20-30대를 평가할 때 20-30대 여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신경중적이고 외향적이고 여러 가지 경험에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주부들의 외향적 특성을 부 각시키면서 '미시족'이라는 신종 마케팅 용어를 만들 어 상품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 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인들은 20-30대 기혼여성에 대하여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이고 덜 성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호의성에서 두 집단간의 견 해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들

은 20-30대 기혼여성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20-30대가 훨씬 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타심이 적다고 보고 있었다.

40-50대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이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경험에 덜 개방적이고, 덜 호의적이며, 덜 성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적개방성에서는 두 집단간에 가장 큰 지각차이를 보였다. 이는 20-30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기혼여성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이들 집단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시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아줌마 바로보기’라는 사회적 동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할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기혼여성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아줌마 혹은 기혼여성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요즘의 목소리(예: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아나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이해성(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20대 한국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은 적극적 특성, 충동적 특성, 감각적 특성, 이기적 특성, 회망적 특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20-30대의 높은 외향성과 지적개방성, 그리고 낮은 호의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이해성의 연구에서 40대 한국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은 무기력한 특성, 자상한 특성, 가족중심적 특성, 뻔뻔한 특성, 과시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40-50대 여성들의 높은 호의성이나 성실성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40-50대 기혼여성들의 호의성, 성실성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해성의 연구에서와 같이 “뻔뻔하다” “가족중심적이다”와 같은 요소들과 혼재되어 타인들에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McCrae와 Costa(1991)가 밝힌 바와 같이 호의성과 성실성은 사랑과 일에 영향을 끼쳐 개인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바람직한 성격 특성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두 연구의 결과들은 기혼여성들의 호의성이나 성실성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만 쏠릴 때는 가족이기주의의 형태로 비취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평가한 집단과 일반인들은 서로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서도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를 다

르게 하고 있었다. 즉, 미혼집단보다는 동일한 집단인 기혼집단이 기혼여성의 성격특성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었고, 남성보다는 동일한 성인 여성 집단이, 그리고 다른 연령대보다는 자신이 속한 연령대의 기혼여성의 성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동일함에 따라 그 집단에 대해 좀 더 많은 객관적 정보를 갖고 있고,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옹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미혼집단과 남성은 기혼집단이나 여성에 비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연령대 보다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연령대의 기혼여성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

먼저,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어떠한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온 바와 같이 3가지 요인(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여 보았다.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3개의 독립적인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져 기존에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다시한번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30대는 40-50대보다 기쁨, 애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의 직업을 갖을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기혼자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bottom-up)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예: 김혜원, 1996; Diener et al., 1999)와 대체로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 교육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30대와 40-50대로 분류하여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교육정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의 정도를 중요하게 따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특히,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각 연령대별로 분류해볼 때, 20-30대에서 교육정도와 함께 직업의 유무는 부정적정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40-50대에서 가구총수입과 결혼상태는 교육정도와 함께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많은 교육을 받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선행변수가 되고 있었다. 이는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학력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는 현 사회적 추세가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0-50대 기혼여성은 가구의 총 수입과 결혼상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 직업활동을 적게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의 총수입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안정된 조건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 3.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간의 관계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먼저 연령 구분없이 전체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과 함께 지적 개방성이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에 따라 다시 구분해 보았을 때, 20-30대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중요한 반면, 40-50대 여성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 지적 개방성이 의미있는 예측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20-30대는 성실성과 외향성이, 40-50대는 지적 개방성과 외향성이 주요한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적개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McCrae & Costa(1991)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을,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서는 정서적 안정성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 Headey & Wearing, 1989; Diener, et. al, 1999),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 지적개방성 특성이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주관적 삶의 질과 성격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20-30대와 40-50대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적 개방성이었다. 다시 말해, 위에서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밝혀진 지적개방성이 특히 40-50대 중년 여성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중년기로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더욱 사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어야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여성사용자, 특히 주부 네티즌의 비율이 급증하여 1999년 초에 이미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조선일보, 1999년 3월 30일자) 기혼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개방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이에 대한 기술감과 통제감을 느낄 때 flow 혹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김명소(1999)의 지적도 지적개방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제한된 수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모두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의 기혼여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령구분에 대해서이다.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과 이론가들이 제시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30대와 40-50대를 각각의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이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의 성격이나 주관적 삶의 질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타당한 구분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변인들은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성격의 5요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소(1999). 인터넷 사용시의 flow 경험과 전자 상거래를 통한 구매의도와의 관계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2(1), 197-225.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태련, 장휘숙 (199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혜원 (1996). 사회구조적 변인, 태도, 역할의 질,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 비취업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Dissertation for Doctoral Degree in Boston University
- 이혜성 (1998). 한국 여성의 심리적 특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I. *한국심리학회: 여성*, 3(1), 103-116.
- 전영자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조선일보(1999). 사이버세계에 주부인파 100만명. 조선일보 1999년 3월 31일.
- 최상진 (1999a). 아줌마의 사회적 표상과 역능 고찰.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1999b). 한국아줌마 무죄론: "한국 아줌마론" 속의 사회심리와 약자누명쓰우기 현상분석. 1999년도 제4차 여성심리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아줌마의 자화상.
- Brickman, C.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ictims: Is happiness rel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Emmons, R. A.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25(2), 276-302.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Headey, B., Veenhoven, R., & Wearing, A. (1991).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81-100.
- McCrae, R. R. & Costa, P. T. (1991). Adding *Liebe und Arbeit*: The full five 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227-232.
- Pulkkinen, (1996). Female and male personality styles: A typological and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88-1306.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Married Women**

Myoung-So Kim · Eun-Hyun Sung · Hyewon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1)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of married women, comparing with the other people's reports and being analyzed by age, 2) to explore the factors of personality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of married women. A group of 370 married women answered on their ow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360 people reported on other married women's personality. In results, married women showed differences on personality of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consciousness, and differences on subjective well-being of positive affect in relation to their age(20-30s vs. 40-50s). Other people's reports on married women's personality were, in general, more negative than those of married women. In addition, of among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income, marital statu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rried women's subjective well-being. In last, showing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subjective well-being, neuroticism,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ousness, extraver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arried women.